

포교는 생명이며 존재가치



“1974년이었습니다. 일타 스님에게 건당한 후 출가하게 해 준 종단의 은혜를 갚자는 생각에 내장사 정화를 했습니다.”

내장사를 시작으로 호남과 인연을 맺은 스님은 광주 원효사 주지 등을 지냈다. 그곳에서 스님은 광주사태를 목격했다. 사람들을 군화가 짓밟는 광경에 참을 수 없었던 스님은 당시 불교계 대표로 상무대 사령관과 면담하기도 했다.

‘열심히’ 살던 스님은 서의현 스님 총무원장 시절 더이상 사판 세계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 도미(護美)했다.

스님은 콜로라도 덴버대학, LA 남가주 대학, 미조리 센투이즈 클레이튼 대학 등에서 수학했다.

1994년 종단 사태 때 법타 스님은 당시 서의현 스님 측이 관장하던 영천 은해사를 정리했다. 은해사 주지 시절에는 현대 한국 불교 최초로 은해사 승가대학을 설립했다.

“오늘날 전국 승가대 교수 90% 이상이 은해사 출신인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열심히’ 살았던 스님에게도 시련이 있었다. YS정부 시절 찾아온 신공안 정국 때 법타 스님은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 위반으로 긴급체포 됐다.

“그 때 국립선방(교도소)에서 105일간 기도 잘하고 나왔습니다. 하하하” 스님은 웃으며 말했지만 국립선방 안거의 후유증은 컸다. 국가보안법 위반 딱지는 대법원에 계류돼 DJ 정권 때까지 6년간 법타 스님의 발목을 쳤다.

1998년 종단 개혁 때도 스님은 징계를 받았다. 그 때마다 스님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진했다. 정진(?) 후에는 종단이 소홀했던 부분을 챙기며 재기(?)에 성공해 주위 사랑을 늘리게 하기도 했다.

“은해사 주지 때 불교계·지역단체 등을 모아 사회정의운동, 통일운동 등을 시작했습니다. 토지와 임야가 대부분인 종단 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수림장(樹林葬)을 고계 최초로 시행한 것도 은해사입니다.”

법타 스님은 “수행은 개인의 일이지만 수행의 목적은 포교의 밑거름이 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성불에 그치면 자기만의 일이 되지만 깨달은 만큼 포교를 해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동국대 정각원장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 했다. 50년 출가 생활의 회향을 모교에서 하고 싶었다는 것.

“<금강경>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시적 삶을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법타 스님은 “정각원은 국내 유일의 궁궐법당”이라고 말했다. 정각원은 경회궁 승전전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강점기에 한민족 말살정책을 펼쳤던 일본은 경회궁은 헐어서 학교를 세우고, 창덕궁은 동물원으로, 경복궁은 박물관을 만들었다. 그때 헐려 동국대에 다시 세워진 건물이 정각원이다.

스님은 “포교는 생명이며, 존재가치이며, 이유”라고 말했다. “포교를 위해서는 용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국 유학시절, 지도교수로부터 북한불교를 연구해 보라는 말에 낫뜨거웠던 스님은 이후 북한에 주목했다. 북한 주민도 우리 동포, 이웃이었다. 19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을 때 한국어권 소지자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던 인물이 스님이었다.

법타 스님은 19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를 만들고 평양과 사리원에 국수공장을 세웠다.

“60톤 밀가루를 보내면 770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MB정부 들어 밀가루를 보내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비록 밀가루 국수지만 배고픈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스님은 “불교가 바로 서려면 대중에 다가가야 하고, 그러려면 포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을 바진세일하던 시대는 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조하루·보름 재 올리고 등 켜던 시대는 갔습니다. 음력생활이 아니라 주5일 체제에 맞춰 불교 생활도 변화해야 합니다.”

법타 스님의 마인드를 따라 정각원도 변했다. 매주 월요일 법회에는 오영교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다수가 참여 중이다. 스님이 시작한 수요일 대학생 법회를 비롯해 토요법회 등 정각원은 동국대 구성원의 생활생활 공간다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천하지 않는 깨달음은 무의미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이 설한 연가법 아닙니까?”

나그네가 법타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인연을 따라 많은 사람이 스님을 만나고 갔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5. 태고종 총무원장 지암 대종사

태고종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지낸 지암 스님은 임기동안 국무담·박대륜·안덕암 스님들께서 이룩해 놓은 태고종의 많은 불사를 가장 조용히 흔들림 없이 건설적으로 운영해오신 분으로 평가받는다.

스님의 법명은 재운(在允)이고, 법호는 지암(芝巖)이며, 속명은 영지(靈芝)다. 1912년 충북 진천에서 박윤희(朴允熙) 응의 독자로 태어났다. 스님은 서당에서 한문공부를 하다가 재교육 바람이 불자 육동보통학교에 들어가 12세에 졸업했다. 이어 3·1 독립운동의 바람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갔다가 충북 속리산 법주사 명우 스님의 제자가 됐다.

스님은 용허 스님에게 계를 받고 불교전문강원에서 이력을 마친 뒤 해화전문학교에 들어가 32세에 졸업했다. 당시 이재복·황



이러한 원력을 이어 자제 원명 스님은 제천불교연합회 회장으로 현제 충청불교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다.

지암 스님은 누구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자가 있으면 장학금을 만들어 후원하고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의약을 제공해 명자 그대로 어두운 길에 밝은 빛이 되었다.

1988년 12월 31일 세수 77세, 법랍 65세로 입적하실 때 상좌 무릎을 베고 “진심이 풀이 아니 고 생사가 풀이 아니니 생활불교에 전력하라”고 유지를 내리신 스님.

나는 스님의 유지를 떠올리면 부처님 당시 박굴라존자가 떠오른다. 어렸을 때 교부의 손에서 다섯 번이나 죽을 고비를 겪었던 박굴라존자는 160세까지 살며 어려운 일을 손수 맡아 다 했다.

박굴라존자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동방불교대 설립해 인재양성 매진...유치원·한방병원 개원

성기 박사와 동기로 지냈다.

스님은 32세에 법주사 재무·교무를 역임하고 35세에 충북교구 감찰원장을 지낸 뒤 52세에 제천 원각사 주지가 됐다.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장이 돼서는 종립 동방불교대학을 설립해 태고종 인재양성에 전 힘을 기울였다.

나와의 인연은 동방불교대 설립으로 시작했다. 당시 나는 여덟명의 도반들과 함께 중곡동에 중곡극장을 빌려 불교정신문화원을 만들고 부설로 포교사전문대학을 설립하고 있었다.

원래 초종과 범불교 운동으로 불사를 시작했으나 지암 스님이 태고종에 종립학교가 없으니 태고종립대학으로 발전시키자고 하셨다.

스님은 출세가 교육이야 말로 중지중흥을 잇는 후진양성에 핵심불사라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그로 인해 LA 오리엔탈대학과

나를 비롯한 당시 모든 사람들은 스님을 심성이 온유하고 자비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때를 거르면서도 돕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특히 스님은 나이 많은 어른들을 지극히 받들어 제천노인회 등 충청지역에서는 아직도 있을 수 없는 은인으로 여기고 있다.

내가 제천에 금강사를 짓고 그곳 노인들을 모셔보니 아들이 원명 스님은 잘 몰라도 지암 스님을 모르는 분이 없었다.

“지암 스님이 살아 계시는 때는 원각사 인근 노인정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오고 눈오는 날이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음식이 제공됐고, 기도 등 불공이 있으면 어른들을 초청해 함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특히 스님은 어르신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조석예불에 오도록 유도해 충청지역에 불교가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했다. 스님의

“부처님 저는 오늘 가야되겠습니다.”

“그래 준비가 다 되었는가?”

“준비됐습니다. 이 몸을 날세들에게 주고저 하오니 제가 만약 생사를 해탈하지 못했다면 땅에 떨어진 피가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갔는데 부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박굴라존자가 바위에 투신했다고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은 “그는 자살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자살했다면 바위에 튀긴 피가 없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

2500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에는 아직도 박굴라존자의 피가 남아있어 생사 해탈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박굴라존자처럼 거짓과 위선 없이 불교중흥을 위해 매진하신 지암 스님, 지암 스님의 정신은 태고종을 넘어 모든 불자가족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라니수저 사찰공양실 불자용수저 “다라니” 시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저 불자가정에서도 사용하게 품질은 최고! 디자인은 세련!



“다라니수저” 출시기념 공평도가 시판

■ 사찰에는보시·불자가정에는 선물! ■ 사찰명과 스님법명을 넣고도 제작!

사찰 공양실에서 공양을 하다보면 처음 만나는 것이 수저다. 공양실의 첫 번째 얼굴이 수저인데 대부분 공양실 수저를 보면 모양도 제각각으로 공양일체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수저가 오래되 굵고 달아 보기도 깔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코팅이 벗겨지면 스테인을 만들 때에 합금을 해서 제작하므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유럽 선진국에서는 장기간 사용하면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교체를 한다. 수저 상단에는 건강장수를 기원하는 “길상문양”과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음”자를 넣었다.

300set 이상 주문시 사찰명 또는 스님 법명을 새겨 제작해 드릴 수 있으며(설비), 선물 포교에 활용하게 수저 set마다 고급 비닐로 포장 되어 있다. 다라니수저는 set당 4,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출시기념으로 공평도가 set당 1,500원씩 사찰과 불자가정에 보급하고 있다. 포장단위는 가정용 20set, 사찰용50set, 100set 단위로 전화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793-0023
 농협 : 793-0023-1234-08 고기영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정 가변고 설치용이

동간격·규격참조

원터치 연등 회전감미

SMD LED전구(국산정품)

고주구 128

민자구 268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 범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양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윤택하며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건전지용 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 청사초롱 및 초롱 길이다

연 등 (정품)

범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귀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